

#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 복음서, 7강, 비유 주석 - 결혼 잔치의 비유

© 2024 Robert Newman 및 Ted Hildebrandt

우리는 여기서 공관복음에 대한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에 관한 5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며, 방금 전에 비유의 정의를 살펴보고 비유가 이야기, 비유 또는 예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가끔 번역과 관련된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 어떤 사람 왕과 같으니 저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을 부르되 청한 자들을 부르라 아마도 이전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경매와 살진 소들이 도살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잔치에 오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가게로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다음 성문으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그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가져왔으며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관찰하러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친구야,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제 그는 침묵했고 아마도 어이가 없거나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손과 발을 결박하라 하니라 그것들을 바깥 어둠 속에 던져 버리세요.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거나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소수가 선택되거나 소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14절을 번역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음, 그게 우리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해 약간의 분석을 해보자. 이 비유는 서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고, 종들이 있고,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여기서 정말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가 있습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 왕은 초대받은 손님들을 부르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손님이 안 오네요.

왕은 그들에게 두 번째 요청을 보냈고, 그들 중 일부는 더 나은 일을 하고, 다른 일부는 종들을 학대하거나 죽였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손님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대체 손님을 모으기 위해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연회장에 갔다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손님을 발견하고 쫓겨납니다. 장면은 대부분 불특정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그가 그의 종들을 보내는 왕좌의 방이나 그런 종류의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손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고 그들은 아마도 도시에 있을 것이며 연회가 있을 것입니다. 흠.

음모. Wellis는 실제로 하나 이상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한 줄거리 중 하나는 은혜로운 초대가 거부된다는 것이며, 거기에 어떤 저류가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쎄요, 내 생각에 그 반응은 무관심과 반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은 심판을 받고 실제로 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혜로운 초대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무관심이 심판을 받습니다. 와일더의 스토리텔링 장치를 간략히 생각해보면 비유라기에는 길지만 이야기라기엔 짧다. 네,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소 특이한 확장이 있어서 이 다른 손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한된 수의 액션 또는 제한된 수의 배우, 실례합니다. 2의 규칙입니다. 글쎄, 왕, 하인, 손님, 부적절하게 닫힌 손님, 상당수의 배우가 있지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두 명뿐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그렇습니다.

군대의 활동을 제외한 연쇄 전개는 왕이 군대를 보내는 곳까지 달려가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준다. 군대는 도시를 불태웠지만 아마도 그가 그들을 보낸 시간쯤에 다시 돌아왔고,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곳을 채울 추가 손님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3의 법칙: 음, 세 개의 초대가 있는데, 이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개의 초대일 수도 있으므로 세 개가 분명합니다.

그는 첫 번째 종들을 보냈고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같은 그룹으로 다시 보냈고 그들은 무시되거나 학대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새로운 그룹으로 가는 세 번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을 얻게 됩니다. 더 나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인을 때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

반복, 확실히 거기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3의 법칙에서 그런 종류의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대 백인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손님의 성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좋은 손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쁜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남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는 마지막에 확실히 주목을 끈다.

종종 Wilder가 말했듯이 비유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따라서 Wilder가 말한 것처럼 이야기는 반전에 의해 해결됩니다. 연회장에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거기에서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 단계입니다. 음, 이건 2단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테너와 비히클을 아래에서 살펴보고, 투레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썄, 이것은 비유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보게 될 비유의 샘플 중 하나가 아니므로 일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혼인 잔치를 베푼 인간 왕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첫 구절에서 이미 제안된 테너입니다. 이 실제 시작 부분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상당히 흔한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천국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그 뒤에는 대개 명사가 옵니다. 문제는 천국을 그 명사, 즉 천국과 동일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아니면 천국을 전체 이야기와 동일시하는지, 그리고 그 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랍비의 비유와 예수의 비유에서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그것이 같다고 언급했지만 종종 그것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너가 천국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차량은 결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요 비유는 보시다시피 차량 안에 있고 왕이 있으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주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하시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매우 흔한 이미지와 랍비 비유에서 매우 흔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의 비유나 랍비의 비유에서 왕을 볼 때, 열에 아홉 경우 이상은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그렇지 않은 것은 왕이 10,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고 20,000명을 데리고 오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앉아서 그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왕이라고 상상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사점, 나는 사이다의 상세한 유사점을 연구할 때처럼 여기서 구조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너의 이야기에서는 하인이 초대받은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글썄요,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종류의 것,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초대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비유 중 하나입니다. 원하신다면 유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대한 응답은 아마도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테너와 스토리의 차량, 테너에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원하신다면 자신의 밭이나 가게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복음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약간의 박해인데,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한두 마을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박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강해지며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테너의 초대에 대한 응답은 원하는 경우 일부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혼인 잔치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일부도 실제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반응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더 발견합니다. 그분은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의 종들을 때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우고, 그 살인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같은 도시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한 그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엔 파운드의 비유에서 이야기가 사례 4, 5, 6, 7, 8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비유를 짧게 유지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를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9, 10 중 하나. 게다가, 왕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가 태연한 태도를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에 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유로서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래 청중들은 이 특별한 비유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세기가 지난 지금 더 많은 것을 포착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경에서 또 무엇을 포착할까요?

글쎄요, 그 상징의 일부입니다. 랍비들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도 흔히 구약성서에서 가져온 일반적인 은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매우 안전하며 이는 분명히 구약의 그림입니다. 말라기 등은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랍비의 비유에서도 매우 표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왕을 대표하시는가? 일반적인

구약성서의 은유, 일반적인 신약성서의 은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해석적 힌트를 고려하면 이는 비유의 흐름에 적합합니다.

바깥의 어두움, 울음, 이를 가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 나타나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두 가지 상징은 결혼과 연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글쎄, 우선 결혼.

결혼은 흔히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몇 가지 예는 이사야 54 장 5절부터 7절까지이며, 개정된 새 미국 표준(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지으신 자시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당신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 곧 하나님이라 일컬음이니라. 온 땅의. 주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마치 버림받아 심령에 근심하는 아내 같으니 곧 어려서 취하여 버림받은 아내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 남편으로서의 하나님과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절당한 아내가 다시 부름을 받아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호세아 1-2장에서 선지자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극악한 음행을 행함이니라 .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고멜과 호세아가 자녀를 갖게 되거나, 적어도 고멜이 자녀를 낳고, 결국 그녀는 다른 연인들과 함께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을 불확실한 지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이 함께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호세아와 관계를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결혼하셨다는 개념을 담고 있으며, 물론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종종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결혼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유는 주로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 잔치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많은 잔치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연히 그것이 왕의 아들 의 결혼 잔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비유에서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지만 해석적 힌트로 거기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로서 연회는 구약성서에서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지만 신약성서와 랍비 문헌에서는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몇 가지 가능성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 호화로운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산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사야가 묵은 포도주와 골수를 넣은 귀한 조각과 숙성된 정제 포도주의 잔치를 선포할 때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산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덮개, 곧 모든 나라 위에 펼쳐진 휘장을 삼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의 치욕을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글썄, 나는 그것이 일종의 종말론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로부터 죽음을 가져가시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잔치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목자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전체를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양으로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편 중간에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양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의 궁전의 손님으로, 왕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의 궁전의 손님으로 삼으십시오. 물론 다윗에게는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였으며 양과 가족의 양떼를 키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족을 두었습니다. 손님은 왕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실제로 그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평생 손님으로 불러와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여 돌아온 후에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를 대접한 사람은 바르실라인데 그는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의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늙었고, 음악과 춤 등을 즐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함을 데려가면 우리는' 누구인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게 아들이나 손자 같은 사람이니까 김함은 왕궁의 평생 손님이 되려 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며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왕의 집에 머무는 평생 손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가 손님이십니다.

그보다 앞선 시편 22편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의 모습과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황량한 사람에 대한 노래가 갑자기 마지막에 찬양의 시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10절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말미암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곤고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를 찾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찌어다 서약 연회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구약성서 여기저기서 조금 언급되는 절차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제사, 즉 서원 제사에 상당한 양의 동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건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위해 식사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전 경내 어딘가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이 기념 제물은 무엇이며, 서원이 그 일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시면 나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서원 잔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손과 발이 찢린 사람, 알다시피 감옥에 눕혀진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망의 흠이요,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고, 그의 모든 뼈가 보이느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고, 이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연회 장면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것도 종말론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이 셋 중 적어도 둘은 일종의 마지막 연회를 보고 있었고, 내 생각에는 랍비들이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메시아적 연회라는 용어는 현재 복음주의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하나님과 인류, 특히 그의 백성과의 관계, 특히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경우 연회, 메시아 연회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상징적 요소는 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에서 묻습니다. 속제를 위해 가지고 있는 시트, 구약에서 의복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분명히 의복은 비 유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몇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6:41, 시편 132:16, 이사야 61:10, 11 등 4~5개의 구절을 보면 구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옷을 볼 수 있습니다. 61:10-11.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음이니라.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몸단장을 하듯 그분께서는 의의 옷으로 나를 감싸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정원사가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구원, 의, 그런 종류의 것을 상징하는 옷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음 아이디어 속옷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의의 옷으로 감싸셨습니다. 그것은 시편 132-9편, 이사야 59:15-19에도 나타나며, 이사야 132:9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너희 경건한 자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라. 스가랴 3장 1~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참소하매 하나님께서 그 그러므로 의로움과 불의함은 일반적으로 옷의 청결함으로 상징되며 아마도 색깔의 유무로 상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복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시편 132:18, 수치를 상징하는 옷, 이사야 63:1-6, 복수를 상징하는 옷, 이사야 52:1-2, 힘을 상징하는 옷.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다가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제가 물었던 또 다른 질문은 이러한 상징적 요소에 관한 것 외에도 수백 년 후를 되돌아볼 때 이 비유에서 더 명확해진 예측 힌트를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 두 개를 보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첫째, 왕이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보냈다는 언급은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까? 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성경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0장에서 앗수르를 보내시고, 하박국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런 종류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사용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하나, 원래 손님들이 초대를 거절하고 두 번째 세트에 교체되는 모습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당국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과 복음이 다른 나라 전역으로 전파된 것을 볼 때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계. 원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등이 아닌 개인 시민인 누가의 만찬에 관한 다소 유사한 비유에서, 제 생각에는 손님 명단을 채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도시로 가는 것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그들을 찾지 못할 때 도시 밖으로 나가는 등, 거기에 두 세트의 대체 손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나은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 청중들에게 어떤 종류의 교훈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다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적어도 수세기에 걸쳐 초기 교회 역사를 보아온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글쎄, 돌아가서 원래 청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밭과 가게로 나가는 사람들과 부적절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위험이 그곳에서 매우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종들을 때리고 그 중 일부를 죽인 자들에 관하여, 원래 청중은 분명히 한편으로는 어리석음,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전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말은,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왕의 혼인 잔치에 얼마나 자주 초대를 받았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군주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글쎄, 당신은 일종의 대통령 만찬에 얼마나 자주 초대받았습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아마 0일 겁니다.

아니면 당신의 주를 위한 주지사의 신디그에 얼마나 자주 초대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시장의 환영식이라도요? 내 생각엔 그들 대부분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여기서 그것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로 나가고 가게에 가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 청중도 왕과 하나님을 연관지었다면 이것이 다가올 진노에 대한 경고이고 확실히 이미 구약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비유에서는 신비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 중 일부는 70세 이전일 수도 있고 일부는 70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뭐죠? 글썄요, 원래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의 공식 유대교가 메시아 등을 거부했으며 현재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옷을 제공하셨을 것인가, 왕이 이 손님을 위해 옷을 제공했을 것인가, 아니면 손님이 자신의 옷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즉시 매우 독단적인 대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 항상 옷을 제공한다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와 아니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옷을 주면 기독교 신학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연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옷을 왕이 준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준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글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정말로 믿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그의 삶의 방식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과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그림에 대한 성경적 보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양과 염소의 심판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한 만큼 나에게도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읽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편으로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위험 모두 거기에서 암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청중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되돌아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인지 등을 포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청중에게 대부분 경고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확실히 모든 담화나 그런 종류의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기 70년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실히 30년, 33년부터 예수의 지상 사역이 70

년까지 끝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가짜 메시아를 제거한 것이 매우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이 유명한 유대교를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이 스스로 말했듯이 사도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서기 70년 이후에는 성전 전체와 국가와 예루살렘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상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비록 그 시점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결코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썄, 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것들을 볼 수 있나요? 글썄요, 이 모든 것의 앞부분은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 왕은 이미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종들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아마도 초대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종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메일과 초대장,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다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 약간의 불확실성을 안고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 것과 같은 우리 사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

그들은 하인을 보냅니다. 당신은 종들이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그 은혜로운 초대를 거절하는 인간의 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 외에, 그의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의 도시 등을 파괴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 외에 다른 것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곳에 있지만 적절한 옷을 입지 않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어야 하는 마지막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끌고 준비하는 생활 방식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의 밭이나 가게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것은 비유에 대한 우리의 논의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지만, 그 중 일부를 살펴보고 합니다.

그 특별한 비유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진노에 대한 경고, 인간이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공관복음 과정의 6부, 6과에서 말하는 내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